빛고을 새싹불심 키우기 '선봉'

탐방 광주전남교사불자회

2년새 청소년 수계 5천여명 결실
'아침사' '무등불' 등 문서포교 활발

빛고을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불교 중흥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청소년불자들이 대규모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2천명, 올해는 3천명의 중·고등학생 불자들이 수계를 받고 선재동자의 뒤를 따르고 있다. 다름아닌 광주전남불지교사모임(회장 김진택·전남여상고)이 지난해부터 지역불교계의 온 정성을 모아 거행하고 있는 '광주전남 청소년 불자 합동 수계대법회 및 축제 한마당' 때문.

"미래 부처님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십시오. 빛고을 불교의 희망을 보십시오."

10월 26일 무각사에서 봉행된 제2회 청소년불자 합동수계대법회에서도 이같은 교사들의 외침이 범종의 울림이 되어 호남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학교마다 가정마다 법등을 켜기 위해 나선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은 회원 40명의 발기로 지난 95년 12월 광주불교금융회관에서 결성됐다. 그 해 20여개의 중고등학교에 '불교학생회' 혹은 '문화답사반'이란 이름으로 배움터에 연꽃을 피우기 시작, 지난해 10월 2천여 청소년들의 싱싱한 팔뚝에 연비의 열매를 맺게 했다.

"미래부처 탄생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빛고을 불교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김진택회장은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의 벅찬 환희가 있었기에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불법을 전하는데 고단함을 잊고 있다. 회원들도 이제는 1백여명에 이르렀고 불연을 맺은 학교도 60여곳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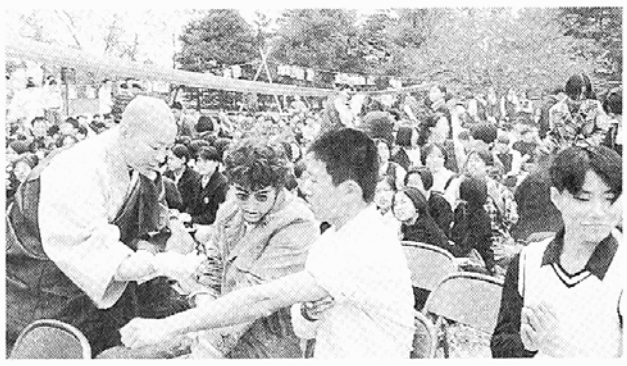
조인숙(송원여상)부회장은 "저희 불자교사들은 '이 뭣고'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을 시간조차 없어요. 아직도 법등을 켜지 못한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참선'은 학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불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문서포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10대 들에게 띄우는 붓다의 편지' 월간 〈아침사〉, '교사들에게 띄우는 붓다의 향기' 월간 〈무등불〉을 각각 3천·1천부씩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10대들을 위한 사찰안내서 〈절 그리고 절〉 1만5천권을 불교학생회 지도서로 법보시했고, 올해도 불교의 핵심사상을 담은 〈삼세인과 그리고 윤회〉를 김희장의 조계종 포교대상(원력상) 수상금과 안대지행보살의 원력으로 3천여권을 발간해 놓고 법보시할 예정이다.

물론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바른 법을 전하기에 앞서 매월 사찰순례 법회와 분기별 수련회, 문화답사 등으로 법사로서의 자질을 확립하는 한편, 매년 80여명에게 8백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불자 육성에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광주=김재경 기자



◇ 10월26일 무각사에서 봉행된 제2회 청소년불자 합동수계식에서 3천여 중·고 학생불자들이 계를 받았다.

성림당 월산스님 49재 엄수

성림당 월산대종사(前 불국사·법주사 조실)의 49재가 10월 24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엄수됐다. 이날 49재에는 혜암(조계종 원로회의장), 서옹(고불총림 방장), 성찬(도성선원 조실), 숭산(화계사 조실), 진제(동화사 조실),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암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을 비롯 이원식씨(경주시장)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백양사 고불미술관 개관전시

전남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는 10월28일 우하루에서 고불미술관 개관 및 탁본전시회를 개최했다. '천년의 미소'란 주제로 출품된 고달사지 비천상, 갑사동종 지장보살상 등 40여점의 탁본은 12월31일까지 전시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선 백양사주지, 도성 관음사주지 스님을 비롯 김흥식 장성군수, 김영조 장성경찰서장, 조복래 장성군의회의장, 성춘경 옥과미술관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수방사 충정사서 호국위령 대법회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가 주최하고 대한불교법화종 대호정사(주지 혜륜)가 주관한 호국영령위령대법회가 10월26일 수도방위사령부 충정사(주지 정홍찬 법사)에서 봉행됐다.

수방사에서 근무중 순직한 장·사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법화종 종정 구암스님, 대호 총무원장, 김인종 수도방위사령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산불교 영산재보존회의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신도회 제2차 불서 전달식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10월27일 코모도호텔에서 정기이사회 및 제2차 불교도서 전달식을 갖고 자운사, 항만정사, 창녕 11군단, 해군 3함대 등 4개의 군법당과 부산시립의료원 동아대학병원에 모두 1천권의 불교책자와 책장을 전달했다. 신도회는 앞으로도 교도소, 군법당, 병원 등에 보낼 불교도서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051)464-2020

불일·조계사청년회 교류 잔치
길놀이·한량무 등 행사 다채

곡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김종주)는 10월24일 신명아트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 조계사 청년호와의 교류 및 원각의 밤'을 개최했다.

월인 광주사암연합회장스님을 비롯 역대 불일청년호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길놀이, 한량무, 민요 등의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한국통신 불자회 '개통'

회원 1백명…성지순례·봉사활동
전국 6만 직원에 법음전파 기대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한국통신 본사 직원 1백명으로 구성된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사진·네트워크본부 기술기획국장·55)가 10월 22일 오후 조계사에서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교수)과 불자직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로써 한국통신 내에는 대구본부의 진여회(85년 창립), 서울번호안내국불자회(93년), 충남본부불자회(97년 9월)를 통합할 수 있게 됐으며, 10개 지역본부 4백여 전화국에 근무하는 6만5천여 직원에게 법음을 전할 수 있는 포교마당이 펼쳐지게 됐다.

한국통신불자회는 지난 9월 9일 회사 건전모임에 정식등록한 것을 계기로 당분간 타 동호회와 공동으로 법당을 이용(내년 청사 이전시 법당 확보 기대)하면서 매달 첫째 수요일에 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불심을 키우고 셋째 수요일에는 자체적으로 기초교리강좌를 개설, 보살행의 기초를 닦을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기 성지순례와 봉사활동을 강화해 '행동하는 불심'이 될 것을 서원하고 있다.

김문수회장은 "본사 법회를 활성화 하면서 이미 결성된 지역불자회와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보여주기식 행사는 자제하되 사내 한가족운동의 일환으로 일반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모범적인 열린 종교모임으로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회로 새 삶 찾는다"
하불동 100명 3천~1만배 기도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11월 8, 9일 상도동 보문사 법당에서 3천~1만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진실된 참회의 원력으로 성불의 인연을 맺고자 하는 이 법회에는 전국 각처에서 장애불자를 비롯한 회원 1백여명이 이미 동참의사를 표했으며,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법회는 2백만원의 법회 지원금을 보시한 한 장애인 보살의 원력으로 시작돼 더욱 의미가 깊다. 한때 성철스님이 주석한 백련암에서 다리를 못쓰는 장애자와 눈먼 어머니가 강력한 원력으로 이틀만에 3천배를 마치자, 어머니는 시력을 회복하고 아들은 다리장애가 회복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자신도 상당기간 참회를 한 결과 지금은 거의 장애가 극복되는 공덕을 입고 이같은 원력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02)920-3377

우리 모임에선

우리는선우 금산사 수련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10월25~26일 1박2일간 김제 금산사에서 가을 정기수련회를 가졌다.

이날 수련회에서 결사선우들은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할 것"을 간곡하게 발원했다. 이어 열린 전체토론에서는 불살생, 기도하는 생활, 기복 등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는데 알아야 할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지심 우리는선우 이사장,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교수 등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02)278-8672

부경대 교수회 창립 1돌

부경대불자교수회(회장 하만경)는 11월 3일 오후 부경대 대학극장에서 창립 1주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경대학교 통합 1주년기념 종교인 초청 대강연회'를 겸한 이날 법회에서는 네원암 회주 능가스님이 '21세기와 불교사상'이란 주제로 법문했다.

불교사회연 불적순례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님)은 10월18일 남산 용장사지 일대서 '제1회 달빛과 함께 불적순례'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30여명은 삼륜대좌 미륵부처님 앞에서 차공양, 탑돌이 등을 실시했다.

BBS통신원 연료비 전달

불교방송교통통신원불자회 2조(대표 이한조)는 10월28일 김포공항과 서울시내 터미널, 영등포·서울역 등에서 모금행사를 실시했다. 양로원, 고아원 등에 보낼 난방용 연료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 1백 50만원을 모금했다.

영·호남 불자 합동산행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와 부산불교산악회(회장 이순득)는 11월 9일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합동참배 및 산행을 갖는다. 영·호남 불교산악인들의 화합을 통해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번 산행의 동참비는 1만5천원. (062)676-4334

공군불자회 동화사 수련

공군불자회(회장 김주식소장)는 10월 25, 26일 1박2일간 팔공산 동화사에서 공군 군승단원과 공군신도 등 공군불자가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 공군기지에서 참석한 회원들은 입제식을 가진 후 동화사 통일대불전과 선본사 갓바위 등을 참배했으며, 참선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파계사 성전암을 방문, 철웅스님의 법문을 듣고 회향했다.

문수회 중학생에 장학금

서울 신림동 연화정사(주지 정명스님) 주부 신행모임인 문수회(회장 조남연)는 10월 24일 동대부중 교장실에서 재학생 3명에게 각 1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문수회는 지난 94년 2월 창립, 매달 문경 호암사(주지 현정스님) 어린이 15명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등 불우학생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02)873-1486